

제 91 호

연중 제 21 주일

(강림 후 12)

1974. 8. 25.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황 승 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강 료】

좁 은 문

안 용 기 신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 가기를 힘쓰라”(루 13, 24)

진신과 정의가 옳은 줄은 다 알지만 현세 생명이나 생 활의 위협을 의식하면서 진실을 말하고 정의안에 살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혼히는 허위나 불의를 자인할지라도 안전한(?)편을 택하는 것을 현세의 지혜처럼 착각 합니 다.

“너 만일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리라”(루 4, 7) 마귀가 주님을 끌고 세상영화를 보여 주면서 꾀했던 유혹은 오늘도 계속되는데 “네 천주를 경 배하고 다만 저를 섬기라”(루 4, 8) 하신 주님의 말씀은 곧잘 잃어버립니다.

한 인간의 참 행복도 한 국가의 흥망도 바로 마귀의 이 유혹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실천하느냐 않느냐에 달 려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담이후 인류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8월 15일에 있었던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 구를 탓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은 진실과 정의의 기본 권을 포기하고 허위와 불의를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난했어도 지위낮은 목수의 아들이었어도, 한 말로 비겁과 아부와 부정과 기만속에 살지 않으면 안되 겠다는 모든 너두리를 충족시킬 환경에 살았어도, 진실 께 살았고, 정의를 받들어 죽었고, 그래서 찬란한 부 활의 승리를 인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 씀속에 사는 시민이요 살면서 이웃에 뿌리고 비쳐야 할 소금이요 빛입니다.

오르는 물가에, 쪼들리는 생활난에, 쫓기는 시간에 지 쳤습니까? 그래서 노예시절을 그리워하는 광야의 선민 처럼 회절한 무덤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니까? 신앙 의 선민로오서의 긍지와 사명을 상기할 때가 왔습니다.

진리와 정의가 한 인간의 생활신조로 되고 한국가의 기본 정책이 되었을 진정한 평화와 미소의 부활이 있을 을 잊지 맙시다.

<부안 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1)개회식

□**입당송** 주여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 주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 중, 주여 살려 주소서.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는 나의 하느님, 어여삐 여기시소.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이사 66:18-2), 경향잡지 8월호 P. 70) 만백성 가운데서 너의 형제들은 모두 끌어 들이리라.

□**응계송**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못 나라 백성들이 주님을 찬미하라.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찬미하라. ◎ 주님의 사랑 우리 위에 꾀듯하시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시라. ◎

□**제2독서**(히브리 12:5-7, 11-13, 성서 P. 516) 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시련을 주신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살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가지 못하리라 알렐루야.

□**복음**(루가 13:22-30, 성서 P. 168) 동서에서 모여와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하리라.

□신자들의 기도

1. 서로 갈라져 미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주여, 우리들이 하나로 뭉쳐 당신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과 증오를 없애주소서. ◎ 주여...

2.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주여, 당신이 잠깐만 외면 하셔도 우리들은 죽겠나이다. 주여, 갈라진 땅에 비를 주소서. ◎

3. 영원한 대사제인 주여, 당신이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 신 아우구스띠노 김제덕주교의 영명축일을 맞아 비오니, 당신이 주신 목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일치를 이루 게 하시고, 그에게 건강을 주소서. ◎

+ 주여 비오니, 당신의 어린 양들이 바치는 이 바램을 의면하지 마소서. 우리 주... ◎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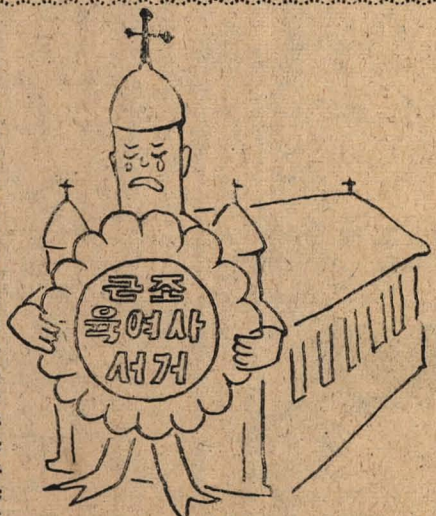
(3)성찬의 전례

□**봉헌** □**영성체**

□**영성체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내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4)폐회식

* 숲 정 이 산책 *



사람과 봉사정신을 본받자!



영혼(靈魂)의 여름 ②

김 영 구 신 부

① 농번(農繁)의 여름

여름은 농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바쁜 때입니다. 이는 여름 한때가 일년 문제를 좌우하는 때인 연고이다. 만일 여름에 고생이 싫어서 그늘나무 밑에서 낮잠이나 자고 놀기만 한다면 가을에 가서 배고픈 일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따므로 농부들이 악을 써 가면서, 염천에 비지 맘을 흘려가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이 까닭이다. 물주고 김베고 갈고 심으며 비 바람 무릅 쓰고 눈부시게 활동한다. 농부일생 무한일(農夫一生 無閑日)로 메두기는 한철이요, 농부도 한철밖에 없는 때문이다. 이와같이 영혼의 농부되는 크리스찬들이여 영혼의 여름은 되었다. 깨어서 열심히 일하자. <일할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농부는 땅이 귀중한 곡식을 산출 할 때까지 끈기있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야고버서 5장 7절) 태만한 농부처럼 일하기 싫어하면 다음날 추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실때에(악하고 게으른 종아) <쓸데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리라> (마태 25장 14-30) 이같은 책망을 면치못하리라. 이따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추수 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 주인에게 간구하여 일꾼을 보내달라)하라(마태 9장 37-38)하였다.

지금도 일꾼을 부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않고 부른다. (마태 20장 1-16) 이 부름에 응하라. 한량 받은 사람처럼 받은 돈을 수건에 싸서 세상이라는 땅에 파묻었다가 한량 본전을 받으소서 하다가 한량마저 빼앗기지 말고 일하자. 종일 서서 한가히 놀고만 있지 말고(내가 여기 있어오나 나를보내 주소서) (이사야 6장 8)분연히 일어나서 부름에 응하라.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다.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주신다. 그만큼 일하라.

② 장마의 여름

여호와께서 의(義)를 비처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호세아 10 : 12) 여름은 비가 많이 오는 때이다.

이는 기상학상으로 태양의 뜨거운 기운이 땅의 수분을 많이 흡수하여 수증기를 많이 만들어 내는 때문이다.

비는 원래 하늘에서 오지만 기질 땅에서 올라가서 땅으로 내려오는 셈이다. 다만 수분을 증발하는 기운만 하늘에 있는 법이다. 곡식에 비는 유아에게 젖과같은 좋은 자양이다. 이같이 영혼에도 비가 필요하니 묵발같은 사람의 마음에 은총의 단비를 내리실 때에 심령에 쏘피고 꽃피며 열매를 맺게 된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사막에 샘이 솟는 것 처럼, 운택한 물뎌 동산 처럼 아름다워진다.

땅에서 보이지 않은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큰비가 되어 내려오는 것 같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태양(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은혜의 큰 비를 가지고 온다.

저 등.서해 바다물이 올라가서 삼천리 강산을 콤게 꾸며 주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이 소생한다. 엘리야의 힘찬 기도는 3년반 만에 큰 비를 가지고 왔다.

하느님이여! 이 강산에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③ 등산유수(登山遊水)의 여름

여름에는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찾아간다. 옛 글에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라(仁者樂山 智者樂水)하였다. 주님께서서는 산과 물을 좋아하셨다. 설교시에 산과 바다를 이용하신 것도 이 까닭이다. 산수는 인간에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철중에 여름이 가장 산수를 그리워하는 때이다. 산에 가서 대자연의 품에서 쉬는 일과 물에 가서 심신을 씻는 일은 폭양의 열장군에게 쫓긴 인생들의 피난처이다.

영혼에 산수가 있으니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냇가로 인도 하시도다> 은혜의 등산과 생명샘을 가르킵니다. 생명샘에 마시고 씻고 은혜의 등산에서 편히 쉬는 영혼의 평화로운 모습 한폭의 그림이 아닌가? <내가 몰약산과 유향봉에 가리르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오너라> (아가 2장 17 : 4장 4) 주님은 우리를 부른다. 주님과 같이 그 산에 오르고 그 샘에 내려가는 영적 세계의 즐거운 모습 아름답도다.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관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仔犬분양 (입한전 애견)
문의처 : 전화 ②7692(진북동 어은플)

고 외 과 의 원

고 재 상(나자로)

TEL. ② 7 4 2 5

서중.교육위원회 앞(진북동)

염 소 아 과 의 원

염 의 도(시몬)

TEL. ② 6 8 5 9

서울은행 옆 이치과 뒤

□양 지 쪽□



아침 이슬

한 상 갑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금년 광복절에 당한 어마어마한 사건만해도 그렇다. 한때는 가짜 대통령 아들이 낫빠진 아부와 공무원들을 우롱해서 우리를 웃겨준 일도 있었다. 굳이 외래 화장품만 쓰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여인들이 피부를 상하고 나서도 가짜 외래(?) 화장품의 매력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모든 부조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어쨌서 간단한 메모 쪽지 하나로 어마어마한 돈을 엉터리 유행 기업체가 대부분 받을 수 있는가? 심지어는 북괴에서 온 흉악한 그들조차도 기관원을 사칭하고 검문을 빠졌다니 어이가 없다. 도무지 잘 모르겠다(?)

이처럼 부조리가 판을 치니 이제 사람들은 제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콩을 심어 콩만을 거두어 드리는 자는 어딘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 되고, 콩을 심으면 콩은 물론이고 쌀과 금은보화를 거두어 드릴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물론 새로운 품종 개량으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무엇이 당연한 일인지 판단을 할 수조차 없게되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게되니 우리의 가치관에는 커다란 혼돈이 일고, 사람들은 서로를 못 믿어하는 불행을 슬쉬며 살아가게 되었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 미련한(?) 사람이 있었다. 광야에서 가르치며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로 보였다. 그를 받들겠다고 물려든 군중들을 그는 단호히 물리쳤다. 그 좋은 기회를 세례자 요한은 포기하고 말았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말이다. 그러나 요한은 영롱한 아침 이슬이 맑게 떠오르는 햇살에 스러지는 큰 진리를 알았다.

영롱하게만 보이던 아침 이슬도 태양이 떠오르면 말없이 사라지고, 밤새도록 눈을 어지럽히던 오색찬란한 네온싸인도 동녘이 밝아오면 그 빛을 잃는다.

요십이 (57) 김병오



□양서안내□

아름다운 새벽

-마해송 지음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이 주간의 성경

26<월> 독서(테살로니카후서 1:1-5, 11-15 P.471)

복음(마태오 23:13-22, 성서 P.56)

27<화> 성녀 모니카 기념 (5월 4일)

독서(집회서 26:1-4, 16-21)

복음(루가 7:11-17, 성서 P.142)

28<수>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

독서(요한1서 4:7-16, 성서 P.548)

복음(마태오 23:8-12, 성서 P.55)

29<목> 성 요한 세자 수난 기념

독서(예레미야 1:17-19)

복음(마르코6:17-29, 성서 P.88)

30<금> 독서(고린토 전서 1:17-25, 성서 P.372)

복음(마태오 25:1-13, 성서 P.61)

31<토> 독서(고린토전서 1:26-31, 성서 P.372)

복음(마태오 25:14-30, 성서 P.61)

문 산부인과 의원

문 지 식(배나도)

TEL. ② 2918

경전라사 옆 제신청 뒤

이 신경외과 의원

이 종 두(헨리교)

TEL. ② 2646

아관원 옆. 구 대구집

* 대형 에어컨 가동중!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찾 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③5011 찾집 ③5013

김 원 준(야고버)

제4지구 6개 본당 소식

1. 공소 교리 교사 연수회, 118명 수료 (8월 18-22일, 송광 "자연의 집")

공소 교리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여 본 교구장 김재덕 주교님께서서는 금일봉을 전달하셨고, 회장 및 총무 연수회에 참석한 교구내 각 본당 사도회장 및 총무들은 성금을 모아 "자연의 집"을 방문하여 이들을 위문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였다.

- ① 강의 내용: 성서, 교리 교수법, 레크리에이션 및 수업연구
- ② 강사: 김종길, 문정현, 박진량, 유장훈, 양재철, 박창신 신부, 한상갑 선생
- ③ 생활지도: 김병엽 신부

2. 회장 및 총무 연수회 (8월 21-22일, 가톨릭 센터)

사목 협의회 (회장: 조성호, 지도신부: 김종택 부주교)가 주최한 각 본당 사도회장 및 총무 연수회에 교구내 31개 본당 중 29개 본당에서 51명 (회장단 25명, 총무 26명)이 참석 하였다.

- ① 강의 내용 및 강사: 새로운 교회상, 공동체와 나(법석규 신부), 교회문서(김종택 부주교, 한상갑 선생)
- ② 교회관리(김영신 신부, 조성호 선생)
- ③ 공소 교리 교사 연수회 위문

3. 교구 예산 심의를 위한 연석회의 (8월 22일, 가톨릭 센터)

1975년도 교구 예산 심의를 위한 각 본당 평신도 대표 1명씩과 교구 평의원 신부들의 연석회의가 있었다.

4. 본당 순회 교육 실시 (8월 31일 부터)

사목협의회의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각 본당 순회교육을 실시 한다.

5. 본 교구장 김재덕(아우구스띠누스) 주교님의 영명 축일 (8월 28일<수>)

모든 교우들은 주교님의 영명 축일을 맞아 마음을 같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서석구
사도 회장 이복석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심 부녀회 월례회

첫 금요일(9월 6일) 어머니 미사후

- 2. 중·고등학생 카드 제출 요망
- 3. 사도회 사업보고, 사업계획, 예산안 제출 요망.
- 4. 특별헌금 감사합니다.

본당 유지를 위해 바쳐주신 성의에 감사 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42,082원, 감사 합니다.

※ 9월은 북자 성월

매일 저녁 미사후에 공동으로 성월을 바칩시다.

- 1. 신용 조합 미사회(오늘 공식 미사후)
- 2. 북자 부녀부 월례회(오늘 공식 미사후)
- 3. 교무금 납부 요망

8월내에 미수된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 지난 주 성미 3말 2되, 누계 300말 1되
지난 주일 봉헌금 14,370원, 감사 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 1. 사도회 월례회(오늘 10시 미사후)
- 2. 재속 형제회(다음 주일에 월례회)
- 3. 예비신자 송광사 소풍

9월 1일 오전 9시 성당에서 출발

- 4. 예비신자 교리 개학(9월 8일)
교리 시간은 종전과 같음
- 5. 학생회 월례회(다음 주일)
교리 경시 대회 시상식도 있음.
- 6. 교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전동교우 배 바울라, 중노 2가 송 바울라(각 1천원)
누계 1,508,497원

□ 지난 주일 봉헌금 10,955원, 감사 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철
사도 회장 이거영

- 1. 사도회 월례회, 9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
- 2. 어린이 교리반 9월부터 시작.
부모님들은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3. 9월은 한국의 북자의 달.

북자들에게 각별히 정성을 바칩시다.

- 4. 신용 조합 월례회(오늘 공식 미사후)

☆축 결 혼☆ (8월 31일)

신랑 박봉훈, 신부 최옥자

● 선종 오 베드로

□ 성모 승천 봉헌금 9,505원
지난 주일 봉헌금 11,400원, 감사 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 1. 어린이 성세식(매월 첫주일 밤 8시 미사후)
- 2. 팔복동 공업단지 교우를 위한 미사

① 시간:매월 첫 주일 오후 3시

② 장소:전주 제지 사택 구내

- 3. 부녀부 월례회(오늘 공식 미사후)
회원들은 빠짐없이 전원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 4. 아동 교리 시작(금주 토요일 오후 4시)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5. 미납된 교무금은 9월 이전에 완납합니다.

본당 사정이 많이 아쉽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8,840원, 감사 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승현
사도 회장 송재진

☆특 보☆

부부 예비자 교리 안내(매주 월요일)

일시: 9월 첫 월요일 밤 8시반 부터

장소: 사제관 2층 회의실

강사: 김 스테파노 환철 신부

- 1. 8월은 교무금 완납의 달
각 동 구역장 및 사무장 가정방문에 적극 협조요망

● 금주의 숭정이 은인

선교부장 김 병오(그레고리오)님

해성 중·고교 교사, 숭정이 신학과 요십이 만화가

※ 숭정이 1주분은 5,000원입니다. 은인이 됩시다.

□ 성모 승천 특별 헌금 43,342원
지난 주일 봉헌금 43,057원, 감사 합니다.